

2006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칼빈신학에 나타난 언약 증보자이신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趙 唱 訓

칼빈신학에 나타난 언약 증보자이신
여호와와의 사자 그리스도

指導 師 趙 唱 訓 教授

위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2 월 29 일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 專攻

趙 唱 訓

趙唱訓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서철원 印

審査委員 문병호 印

審査委員 강웅산 印

2006년 12 월 29 일

總神大學校 大學院

I. 서론/1

A. 연구목적/1

B. 연구범위/2

II. 반삼위일체론자들과 칼빈의 삼위일체론/3

A. 반삼위일체론자들/3

B.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의의/6

III. 언약의 창시자로서의 여호와와 사자/10

A.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와 사자/10

B. 여호와와 사자의 현현-하나님의 자비와 낮추심/16

IV.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여호와와 사자/21

A. 교회의 머리/21

B. 성육신의 암시/28

C. 성전과 제물/31

V. 여호와와 현현 교리에 있어서의 발전방향/36

A.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설명의 명료성/36

VI. 결론/41

국문초록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다.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다.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은 언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적응이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적응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다. 그는 좀더 친밀하게 중보자로 접근하기 위하여 오셨다.¹⁾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의 중보자이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천사"라는 호칭은 중보자의 직무로서의 호칭이다.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암시이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정해져 있는 임무의 성격을 드러내었다.²⁾

칼빈에 의하면, 성전은 그리스도에게 봉헌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위한 중보자를 주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예

1) *Inst.*,1.13.10.

2) *Inst.*,1.13.10.

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의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I. 서론

A. 연구목적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교 교리는 교회의 기초이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 구원관도 잘못되며 모든 신앙생활은 그 뿌리를 잃는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교리들은 논쟁되어왔고 논쟁중이다. 정통과 이단이 판가름 난다. 또한 교리와 경건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칼빈의 책 열두 페이지를 읽으면, 교리(doctrine)라는 단어를 사람들은 열두번 발견하고, 심지어는 한 페이지에서 네 번도 발견한다.³⁾ 또한 『기독교강요』 초판의 제목은 『경건의 총체적 요점과 구원의 교리핵심』이었다. 계속된 기독교강요 개정판에서도 칼빈은 경건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칼빈은 그의 책을 읽는 자들이 경건한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이다.⁴⁾ 칼빈에 있어서 교리에 대한 관심은 양육에 대한 관심을 앞섰다. 왜냐하면 교리는 항상 가장 진실한 양육을 배태하기 때문이다.⁵⁾ 칼빈은 1537년판 『신앙교육서』에서도 삼위일체 교리에 관하여 언급한다. 왜냐하면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리이다. 또한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뿐만 아니라 각 주석들과 논문들에서 삼위일체와 기독교교리를 많이 다룬다. 머리가 없는 팔은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그만큼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신성, 자존성은 모두 인간을 겸손하게 한다.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교교리는 경건한 신앙과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삼위일체와 기독교교리 중에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 현현교리

3) Emile Doumergue, *Le Caractere de Calvin*,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p.32-33.

4)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p.16.

5)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p.57.

는 우리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준다. 그리스도의 신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그의 겸손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등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다.

B. 연구범위

칼빈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그의 『기독교강요』와 주석을 보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이 두 가지들을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하였다. 칼빈은 그의 주석들에서 개별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기독교강요』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들을 통하여 칼빈의 사상의 큰 줄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논문들과 서간집들도 많은 유익을 준다.

칼빈의 1559년판 『기독교강요』는 그의 사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강요』는 초판 출판 후에 7차에 걸쳐 라틴어와 불어판으로 증보 개정되었다. 칼빈은 매 판본마다 그가 축적했던 주석학적, 신학적 자료들을 추가 하였다. 또한 성경 및 여러 저자들의 글을 연구하여 인용구의 숫자를 늘렸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의 모든 저서 중 『기독교강요』가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⁶⁾ 이 책은 종교개혁이후에 나온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교리의 해석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 『기독교강요』야말로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명료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기독교신앙에 대한 해설서임에 틀림없다.⁸⁾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발간된 『종교개혁 총서』

6) W. Stanford Reid, "16세기 칼빈주의의 전파",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이훈영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54.

7) 정성구, 『칼빈주의 연구』(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1992), p.10, Walker. *History of Church*, p.128. 재인용.

8)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Corpus Reformationum) 가운데 4절판 2단으로 된 59권의 칼빈의 『저작전집』(opera omnia)에서 35권 이상이 성경관련 저서들이다.⁹⁾ 국판으로는 2만면이나 되는 책이다. 그래서 교회사가 샤프는 말하기를 “루터가 성경번역의 왕이라고 한다면 칼빈은 성경주석의 왕이다”라고 했다.¹⁰⁾ 즉 그의 주석 및 설교 작품들은 그의 『저작전집』(opera omnia)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¹⁾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렇게 그의 사상의 두 가지 큰 근간이 되는 『기독교강요』와 주석들을 기초로 하였고 또한 그의 논문들도 참고하였다. 특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본문들은 거의 다 찾아보았다. 칼빈은 일반 신학논문과는 달리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언급들은 주로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당 성경본문 속에서 칼빈이 어떻게 주석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각 해당 성경본문을 각주에 기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II. 반삼위일체론자들과 칼빈의 삼위일체론

A. 반삼위일체론자들

칼빈 당대에 칼빈과 심한 논쟁을 한 반삼위일체론자는 세르베투스이다. 그는 1531년 『삼위일체의 오류론』(De Trinitatis Erroribus)와 1552년 『삼위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p.19.

9) T. H. L. Par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칼빈신학입문』, 박희석 역(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13.

10)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I)』(서울: 한국성서협회, 1979), p.57.

11) Richard Stauffer, 『칼빈의 설교학』, 박건택 편역(서울: 나비, 1990), p.37.

일체에 대한 문답』(Dialogorum de trinitate)와 1553년 『기독교 재강요』(Christianismi Restitutio)를 출판하였다.¹²⁾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세워놓은 것(Institutio)을 다시 세우겠다(Restitutio)는 것이다. 그 후에 세르베투스는 칼빈에게 32개의 편지를 한 책으로 묶어,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인 M.S.V.라고만 기재해서 공포했다. 이 편지들은 비밀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였는데 그 후 세르베투스가 그것을 인쇄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기독교 재강요』(Christianismi Restitutio)를 쓴 후, 1553년 세르베투스는 이 책의 복사본이 로마 카톨릭에까지 넘어가게 되어, 비엔느에서 체포되어서 심문을 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 심문에서 그는 스스로를 세르베투스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혐의를 벗으려 하였다.¹⁴⁾ 또한 세르베투스는 1553년 9월22일, 칼빈을 명백한 이단으로 고발하면서 그를 제네바로부터 추방할 것과, 칼빈의 재산을 요구할 정도였다.¹⁵⁾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칼빈이 당시 유행하고 있던 새로운 풍조의 미술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해서도 반대하였기 때문에 세르베투스를 정죄하였다고 한다.¹⁶⁾ 그러나 이것은 오해이다. 왜냐하면, 세르베투스는 단지 칼빈 개인에게서만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벌써 세르베투스는 로마카톨릭 진영에서부터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었다. 칼빈이 사역하던 당시 제네바는 반칼빈파들이 칼빈을 적대시하는 분위기여서 세르베투스를 정죄할 때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는데도 칼빈은 그를 정죄하였다.¹⁷⁾ 세르베투스는 칼빈 뿐만 아니라 로마카톨릭을 포함한 많은 교회들로부터 정죄받았으며 그 결과 화형을 당하였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 사회가 얼마나 삼위일

12) 박건택, 『칼뱅의 자유론』(서울: 솔로몬, 2003), pp.224-225.

13) Jean Cadier,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이오갑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pp.172-173.

14) 라은성, “세르베투스 비엔느 공판”, 『칼빈연구 제3집』(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p.296.

15) Francois Wendel, *Calvin*, 『칼빈』, 김재성 역(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p.113.

16) 이태언,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서울: 성광문화사, 1992), p.115.

17) 이근삼, 『칼빈·칼빈주의』(서울: 엠마오, 1995), p.22.

체교리를 중요시하였는가를 보여준다.¹⁸⁾

칼빈은 별도로 『세르베투스의 오류』라는 논문을 썼을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다. 이 책에서 칼빈은 마귀가 복음의 빛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세르베투스를 보냈으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조롱을 받고, 거룩한 신비가 짓밟힌다고 한다.¹⁹⁾ 또 다른 곳에서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마귀라고 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피조물에 의해서는 전에 고안해졌던 적이 결코 없었는데, 비록 많은 이단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곡해했었지만 그렇게까지 곡해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²⁰⁾

세르베투스의 견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세르베투스는 그의 『기독교 재강요』에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격하면서 삼위일체론은 ‘대가리 셋을 가진 지옥의 개’와 같다고 비판하였다.²¹⁾ 세르베투스는 삼위가 한 본질 안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위(位)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외적 개념일 뿐이며, 그러한 면에서 말씀과 성령은 원래 동일하다고 한다. 즉 위격이란 하나님 영광의 가시적 현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²²⁾ 또한 그는 신격(Godhead)은 분리될 수 없으며, 셋으로 된 하나의 신비는 있을 수 없고, 예수는 영원한 아들이 아니며 인간이었는데 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유아세례를 마귀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원죄를 부인하였다.²³⁾ 베자는 세르베투스를 평가하기를 세르베투스가 유

18) Ronald S. Wallace,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박성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pp.117-118.

19) John Calvin,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대한 논박”, 『종교개혁사상선집』, 박건택 편역(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0), pp.251-253.

20) John Calvin, *Sermons on Isaiah's prophecy of the death and passion of Christ*, 『칼빈의 이사야 설교』,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3), p.129.

21)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0), pp.51-52.

22) *Inst.*, 1, 13, 22.

23) John T. 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양낙홍 공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199.

아세레를 부인하였으며, 삼위일체를 부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성자의 영원성과 관련해서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²⁴⁾

칼빈은 또한 당대에 유니테리언들의 사상가들과도 투쟁하였다. 그들은 조지오 비안드라타와 조반니 파올로 알치아티와 유명한 법학자 그리발디와 조반니 발랑틴 장뎬이다. 장뎬은 성부는 본질을 수여하는 하나님이시며 성자와 성령에게 자신의 신성을 주입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한다. 그러한 면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구별된다고 하였다.²⁵⁾ 또한 칼빈은 반삼위일체론자 마테오 그리발디의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원리를 파괴한다고 하였다.²⁶⁾ 칼빈은 리버틴과 중에서 두 사람은 예수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뿐이라고 말했다가 발렌시아에서 처형당했다고 한다.²⁷⁾

B.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의의

자유주의 신학자인 Paul Tillich는 칼빈에게 있어서 신론은 그의 모든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²⁸⁾ 또한 이양호는 칼빈신학의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²⁹⁾ 칼빈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자들의 관심인 동시에 신

24) Theodore Beza, *The Life Of John Calvin*,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김동현 역(서울: 목회자료사, 1999), p.96.

25) *Inst.*, 1, 13, 23.

26)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te der Kirche*(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서울: 성약, 2004), p.117, 재인용 CR 16,465.

27) John Calv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칼빈의 자유주의 반박론』,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4), p.137.

28)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p.330.

29)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61.

양과 삶에 대한 살아있는 가르침이다.³⁰⁾ 칼빈은 『기독교강요』 초판부터 삼위일체의 고백을 세례식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관련하여 다루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유일성과 삼위성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세례는 삼위의 본질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즉 칼빈은 우리를 하나의 신앙으로 부르는 세례의 증거를 통해서 신의 유일성이 특히 잘 증명된다고 본다.³²⁾ 또한 칼빈은 1537년판 『신앙교육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3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경과 경건의 경험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한 단순 본질을 가지셨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의 지성은 성자(이 성자 안에서 성부의 생생한 형상이 밝히 비추인다)와 성령(이 성령 안에서 성부의 능력과 덕성이 나타난다)을 동시에 파악하지 않고는 성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성과 의지를 다하여 오직 한 하나님을 확고히 붙들자! 그러나 우리는 성자와 그의 성령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을 명심하자.”³³⁾ 칼빈은 중세 시대 서방 신학자들의 질문인 “하나님은 누구인가?”(quid sit Deus)라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의문에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qualis sit Deus?)”라고 묻는 것이 올바르다고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활동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만을 안다고 한다.³⁴⁾ 칼빈은 삼위일체를 논함에 있어서 교회의 건덕(edification)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성부께서 항상 낳으시는지

30) 정준모, 『칼빈의 교리교육론』 (서울: 한들출판사, 2004), pp.97-98.

31)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2005), p.105.

32) Wilhelm Niesel, *Theologie Calvins*,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p.56.

33) John Calvin, *Instruction in Faith*(1537),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20장(사도신경), p.47.

34)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p.33.

(beget)를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낳으심 (begetting)의 행위를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³⁵⁾ 이것을 W. Gary Crampton은 칼빈이 니케아 신조에서 함축적으로 표현된 종속설에 맞서서 전투적으로 반대했다고 생각한다.³⁶⁾ 칼빈은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 서구판의 성령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또한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고백인 “또한 아들로부터”(fillioque)를 강조했다.³⁷⁾

칼빈은 하나님은 한 본질(essentia)안에 세 위격(hypostasis)으로 존재한다고 한다.³⁸⁾ 여기서 칼빈은 위격(hypostasis)과 인격(persons)과 substistence (실재)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한다.³⁹⁾ 또한 칼빈은 성부는 순서상(in order) 제 1위이고, 모든 신성(the whole of divinity)의 시작이며⁴⁰⁾, 또한 어거스틴도 성부가 모든 신격(all deity)의 시작⁴¹⁾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여 성부가 신격(deity)의 시작이라 이해한다.⁴²⁾

칼빈의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으로서의 자존성, 공존성의 강조, 한분 하나님 안에서의 세 인격을 주장한다.⁴³⁾ 칼빈은 『발랑틴 장뎀의 불경건에 대한 해설』 (*Impietas Valentin Gentilis detecta*)를 저술하면서, 성자가 ‘아우토테오스’(스스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본질을 셋으로, 즉 세 위격과 세 본질로 증식시키는 일을 금하도록 하였다.⁴⁴⁾ 삼위일체 논쟁에서 (세르베투스, 젠틸레와 그의 동료들) 칼빈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3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1,13,29.

36) W. Gary Crampton, *What Calvin says*, 『칼빈의 신학』, 박일민 역(서울: 그리스심, 2003), p.56.

37) Jelle Faber,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John Calvin*, 『성신의 신학자, 존칼빈』, 김기찬 역(서울: 성약, 2004), p.98.

38) *Inst.*, 1,13,2.

39) *Inst.*, 1,13,6; 1,13,16; 1,13,20.

40) *Inst.*, 1,13,25.

41) *Inst.*, 1,13,29.

42) *Inst.*, 1,13,26.

43) 정준모, 『칼빈의 교리교육과 현대 교육목회론』 (서울: 은혜, 2003), p.92.

44) 김재성,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pp.171-172.

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옹호하는 것이었다.⁴⁵⁾ Warfield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그리스도의 자존성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칼빈이 그리스도의 절대적 신성과 자존하시는 하나님(autotheotes)가 충분히 증명되면 삼위일체는 확고하게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⁴⁶⁾ 즉 Warfield는 칼빈은 삼위일체 교리사상 신기원을 수립하였는데, 칼빈이 성부와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도 자존적인 존재임을 주장하므로써 교회 안에 오랫동안 남아 있던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대한 종속론을 일소하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상호 대등성을 교회 내에 확고하게 인식시켰다고 한다.⁴⁷⁾

보통 서방교회의 전통은 하나님의 본성(일체)에서 출발하고, 동방은 삼위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면에서 칼빈은 동방교회의 전통에 선다고 할 수 있다.⁴⁸⁾ 왜냐하면, 칼빈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을 바로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 먼저 정리한 후에, 성경에 경륜적으로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을 살피면서, 삼위들의 단일성을 증거하기 때문이다.⁴⁹⁾ 칼빈의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은 교부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성경주석에서 출발하고 마치려는 칼빈의 입장은 서방전통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였으며, 때로는 다른 전통인 동방전통을 따르게 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전통과 교리는 성경의 권위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칼빈은 두 전통을 왕래하는 공교회적인 자유를 누린 것이었다.⁵⁰⁾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어거스틴의 전반적인 신학을 약화시키거나 바꾼 것은 아니다. 단지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교부들이 개인적으로 주장해 온 비성경적 개념은 따르지 않았을 뿐

45)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p.45.

46) 박해경, 『칼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5), pp.191-192.

47) B. B. Warfield, *Calvin · Luther · Augustine*, 『칼빈 · 루터 ·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39.

48) 유해무, “삼위일체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p.135.

49) 유해무, “삼위일체론”, p.144.

50) 유해무,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p.29-30.

이다. 칼빈 자신만 하더라도 먼저 성경이 그들을 믿도록 하는 어떤 확증 없이는 누구도 따르지 않았다.⁵¹⁾ 우리는 칼빈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고후10:5) 자세를 가져야 하며,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인식하여 성경의 절대 권위에 순복해야 할 것이다.⁵²⁾

Ⅲ. 언약의 창시자로서의 여호와와 사자

A.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와 사자

칼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은 예정과 섭리교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칼빈에 의하면,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 ‘자신과 계약하셨다(he compacted with himself)’. 칼빈은 이것을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른다.⁵³⁾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치 않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⁵⁴⁾이며, 하나님은 택자를 선택하실 때 성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하시며, 그리스도는 또한 그들의 신실한 후견인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다.⁵⁵⁾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은 값없이 주신 언약이다.⁵⁶⁾ 교회의 뿌리요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다.⁵⁷⁾ 칼빈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은 실체와 그 자체(substantia et re ipsa)에

51) Jay Green, *Calvin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칼빈주의; 어제·오늘·내일』, 정성구 역(서울: 세종문화사, 1985), p.14.

52)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p.14.

53) *Inst.*, 3,21,4. Quad apud se constitum habuit, quid de unoquoque homine fieri vellet.

54) John Calvin,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p.132-133.

55) John Calvin, 『칼빈의 예정론』, pp.181-184.

56) *Inst.*, 2,6,4; 2,7,1.

57) John Calvin, 『창세기 칼빈의 예정론 핵심설교』, 임원주 역(서울: 예루살렘, 2000),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 둘은 경륜의 양식에 있어 다를 뿐이다.⁵⁸⁾ 새언약은 교훈의 본질에 있어서도 동일하다.⁵⁹⁾ 새언약에서 새로움은 교훈의 본질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형식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⁶⁰⁾

구약시대에 여호와와 사자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며 백성들과 언약하신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에는 그것을 용납하시는가? 왜 여호와와 사자는 굳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가? 필자는 칼빈이 여호와와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며 언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살펴보겠다.

칼빈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사자 자신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주목한다. 칼빈은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와 사자임을 분명히 말하였는데, 여호와와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여호와와 사자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경배를 받으신다고 이해한다. 또한 칼빈은 여호와와 사자를 그리스도로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하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⁶¹⁾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와 현현에 관한 말씀이다. 1절⁶²⁾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되었는데, 2절⁶³⁾에서는 사람 셋이 나타났다고 표현되었다. 9절⁶⁴⁾에서 복수형으로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0절⁶⁵⁾에서 ‘그들’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그’라고 표현한다. 칼빈은 다른 데서는 화자

p.63.

58) *Inst.*, 2,10,2.

59) John Calvin, *Commentary on Jeremiah and Lamentation*. 『구약주석19-예레미야IV』 (서울: 성서원, 1999), 31:31.

60) *Comm. on Jer.* 31:33.

61) *Inst.*, 1,13,10.

62)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63)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64)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65)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를 단지 한 사람에게만 돌리고 있는 한편 여기서는 한번에 세 사람의 화자를 소개한 이유는 세 사람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또한 칼빈은 13-14절⁶⁶⁾에서 하나님의 위엄이 이제야 그 천사들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 그분의 칭호를 말씀하고 있다고 말한다.⁶⁷⁾ 22절⁶⁸⁾에서 ‘그 사람들’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19장 1절⁶⁹⁾에는 두 천사로 언급한다. 여기서 칼빈은 18장에서 나타나신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한다.⁷⁰⁾ 칼빈은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유를 그 스스로가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truly and essentially God)이시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칼빈은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을 받은 분이시지만 여호와와 동일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한다. 즉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동일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한다는 것이다.⁷¹⁾

창세기 28장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을 금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 본문이다. 이 본문의 주석에서, 칼빈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분이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칼빈은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구불변한 언약이며, 경건한 신앙의 신성한 속박이자 계약이며, 이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구원의 언약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라고 이해한다.⁷²⁾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66)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67) *Comm. on Gen.* 18:13.

68)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69)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70) *Comm. on Gen.* 19:1.

71) *Comm. on Gen.* 18:13.

72) *Comm. on Gen.* 28:13-14.

의 상속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추가하신다고 한다.⁷³⁾

창세기 32장 24절⁷⁴⁾은 야곱과 씨름한 이를 사람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이 사람을 천사로 묘사한다. 즉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야곱이 씨름한 자가 천사였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한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칼빈은 모세가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주장한다.⁷⁵⁾ 창세기 32장 27-28절⁷⁶⁾에서,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준다. 또한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고 있다. 야곱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씨름한 장소를 브니엘이라 말하였다. 칼빈은 야곱의 이름을 바꾼 자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⁷⁷⁾ 29절⁷⁸⁾주석에서, 칼빈은 야곱이 자기와 씨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의 이름을 묻은 것은 아니며,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으나 야곱은 아직은 희미하게 휘장과 은폐물 속에 가려진 것처럼 희미하게 알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⁷⁹⁾ 호세아 12장 3-5절⁸⁰⁾주석도 칼빈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주석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칼빈은 성경은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명칭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언급한다.⁸¹⁾ 영원하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

73) *Comm. on Gen.* 28:15.

7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75) *Comm. on Gen.* 32:24.

76)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77) *Comm. on Gen.* 32:28.

78)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79) *Comm. on Gen.* 32:29.

80)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며, 야곱이 씨름한 천사는 참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truly and essentially God)이셨고, 그는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the only true God)이셨다는 것이다.⁸²⁾ 하나님은 베엘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과 씨름한 분은 야곱과 우리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⁸³⁾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유언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의 하나님을 사자라고 표현한다. 칼빈은 15절⁸⁴⁾주석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주목한다. 칼빈은 야곱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으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며, 야곱은 그가 어릴 때부터 겪은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칼빈은 야곱이 그의 조상들의 믿음을 통하여 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the knowledge of God)에 자기의 체험에서 확증한 것을 덧붙이고 있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였으며,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속적인 선하심을 송축하고 있다고 한다.⁸⁵⁾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3-6절⁸⁶⁾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그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하며 굳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시라고 한다.⁸⁷⁾ 또한 7절⁸⁸⁾주석에서, 칼빈은

81) *Comm. on Hos.* 12:3-5.

82) *Comm. on Hos.* 12:3-5.

83) *Comm. on Hos.* 12:3-5.

84)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85) *Comm. on Gen.* 48:15.

86)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87) *Comm. on Exod.* 3:6.

88)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택한 자들에게 무상의 언약이며, 이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에게 특별한 도우심을 베푸신다고 한다.⁸⁹⁾ 8절⁹⁰⁾주석에서 칼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체험했을 것이라고 한다.⁹¹⁾ 즉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될 수 있는 증거는 그들의 열조들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다.⁹²⁾ 15절⁹³⁾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라고 한 것은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진실성을 다시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 열조들과 그 후손들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나타낸다고 한다.⁹⁴⁾ 또한 칼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한다. 이 징계는 벌이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만 징계하신다는 것이다.⁹⁵⁾

칼빈은 말라기 3장 1절⁹⁶⁾주석에서,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도 아버지와 똑 같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선포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⁹⁷⁾ 사람들은 그들이 기대했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9) *Comm. on Exod.* 3:7.

90)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 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 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91) *Comm. on Exod.* 3:8.

92) *Comm. on Exod.* 3:13.

93)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 호니라”

94) *Comm. on Exod.* 3:15.

95) John Calvin, *Calvin's sermons on the books of Jeremiah*, 『칼뱅의 예레미야 설교 장 칼뱅』, 박건택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47.

96)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 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던 하나님께로부터 속았거나 버려졌다고 사악하게 선언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욕적인 비방에 반대하여 자신의 언약을 주장하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악독한 비방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일이 제때에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하시는 것이지만 이 언약을 표현할 때 하나님 자신의 언약(his own covenant)이라고 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인간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해한다.⁹⁸⁾

B. 여호와와 사자의 현현-하나님의 자비와 낮추심

칼빈은 하나님께서 중간의 매개체를 설정하시지 않고 우리를 불러 직접 하늘과 교통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큰 간격 때문에 당황하여 떨게 될 것이요 기도는 중단될 것이라 한다.⁹⁹⁾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맞는 계시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적응이 필요함을 여러 곳에서 언급한다.¹⁰⁰⁾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타고난 본능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자각, 종교의 씨앗이 있다.¹⁰¹⁾ 그러나 인간은 공허한 사색으로 달려간다.¹⁰²⁾ 각 사람의 마음은 미궁과 같아서

97) *Comm. on Mal.* 3:1.

98) *Comm. on Mal.* 3:1.

99) *Comm. on Ps.* 132:2.

100) Ford Lewis Battles,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p.22. Battles는 칼빈은 적응(*accommodatio*)라는 명사는 사용하는 일이 없고, 적응하다(*accommodare*)나 맞추다(*attemperare*)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한다.

101) *Inst.*, 1,3,1.

여러 가지 허위로 끌려갔다.¹⁰³⁾ 그래서 인간이 본성으로만 가르침을 받는다 면, 확실하거나 믿을만하거나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다.¹⁰⁴⁾ 하나님의 일반계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¹⁰⁵⁾ 칼빈은 일반계시가 불충분 하다고 한다.¹⁰⁶⁾ 본 논문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계시에 대한 언급은 이쯤으로 해두고자 한다. 단지 필자는 특별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특별 계시의 증보자로서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를 사자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계시의 증보 자는 여호와의 사자였다.¹⁰⁷⁾ 그런데 필자는 여호와의 사자가 왜 천사나 사 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에 관한 칼빈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직 접 음식을 드셨다. 또한 야곱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직접 씨름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이 볼 수 있도록 자 신을 나타내셨을 때 자기 실재 그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능력으로 받 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한다.¹⁰⁸⁾ 칼빈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았음을 말하는 구절들은 ‘실체 그대로’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 라 단지 그분이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들에게 보여 주실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¹⁰⁹⁾ 야곱과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으나 그것은 하나님 본연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인간의 지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만큼 보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인간들에게서 보

102) *Inst.*, 1,4,1.

103) *Inst.*, 1,5,12.

104) *Inst.*, 1,5,12.

105) *Inst.*, 1,5,14.

106) *Inst.*, 1,6,1.

107) Wallace, Ronald S,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칼빈의 말씀과 성례 전 신학』, 정장복 역(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p.24.

108) *Comm. on Isa.* 6:1.

109) *Comm. on Ezek.* 1:28.

류하시면서도 필요한 만큼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다. 그는 빛의 양을 우리의 비천한 역량에 따라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얼굴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다.¹¹⁰⁾ 칼빈은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모습조차도 하늘에서 갖고 계시는 모습대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며, 단지 그의 무한한 영광에 대한 일단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보여주셨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광채의 빛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라 한다.¹¹¹⁾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품격론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우리의 낮고 천함(특히 타락이후)이 극명하게 대조된 가운데 모든 논의가 진행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¹¹²⁾

출애굽기 3장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와 사자에 대한 언급이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그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에게 적응하심을 말한다. 13-14절¹¹³⁾주석에서, 칼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의 히브리어는 ‘나는 스스로 있을 자이라’로 미래형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미래 시제이라고 한다. 1인칭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면서 3인칭 동사에 문법에 맞지 않게 덧붙였는데, 이것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본질(essence)이 언급될 때마다 경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하나님은 그의 위엄(dignity)을 따라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¹¹⁴⁾ 스테반의 사도행전 7장30절¹¹⁵⁾은 출애굽기 3장을 토대로 한다. 칼빈은 이 주석에

110) *Comm. on Exod.* 33:20.

111) *Comm. on Matt.* 17:2.

112)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p.122.

1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14) *Comm. on Exod.* 3:14.

115)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서 중보자가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에 대한 명백한 증언이며, 그는 아버지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대로는 결코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며, 인간의 능력이 이해할 수 있는 알맞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다고 한다.¹¹⁶⁾ 칼빈은 여호와(יהוה)라는 이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드려야 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를 수용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무한한 인자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를 적응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촉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¹¹⁷⁾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금하시는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본문인 창세기22장 12절¹¹⁸⁾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낮추셨다고 한다.¹¹⁹⁾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다. 6-8절¹²⁰⁾ 주석에서 칼빈은 이 천사들은 실제로(really) 아브라함의 집에 왔었으며,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은 날마다 그분 자신을 놀라운 조물주로 입증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당분간(for a time) 몸을 주셨다고 한다.¹²¹⁾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천사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몸(temporary bodies)

116) *Comm. on Acts.* 7:30.

117) *Comm. on Gen.* 28:13.

118)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19) *Comm. on Gen.* 22:12.

120)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때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뼈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 때 그들이 먹으니라”

121) *Comm. on Gen.* 18:6.

을 입히신 것일 뿐, 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과 일치되며, 우리의 성품과 똑같이 입으셨듯이 인간의 몸으로 싸여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¹²²⁾ 칼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를 대접받으시면서 좀더 친근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셨다고 한다.¹²³⁾

또한 창세기32장과 호세아 12장 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적용하시는 사랑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창세기 32장 25절¹²⁴⁾주석에서 칼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저주셨다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방식을 따라 말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속성(the properties of human nature)을 스스로 취하시고 야곱과 씨름하셨다고 말한다. 즉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이해한다.¹²⁵⁾ 26절¹²⁶⁾주석에서, 칼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에게 씨름을 저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관용이라고 설명한다. 칼빈은 야곱이 씨름하던 사람에게 눈물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야곱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¹²⁷⁾ 30절¹²⁸⁾주석에서 칼빈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칭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 때문이라고 이해한다.¹²⁹⁾ 칼빈은 야곱은 진실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며, 그래서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이라고 본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야곱과 씨름하신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허벅지를 골

122) *Comm. on Gen.* 18:16.

123) *Comm. on Gen.* 19:1.

124)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125) *Comm. on Gen.* 32:25.

1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127) *Comm. on Gen.* 32:26.

128)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129) *Comm. on Gen.* 32:30.

절시켜 놓으셨으므로 이때 야곱은 울면서 그에게 간청하였으며, 축복 받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이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 받기를 간청하는 당연하듯이, 야곱은 이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라 한다. 칼빈은 ‘벤엘에서 저를 만나셨다’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두려워하여 도망하였을 때에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 은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은혜라 이해한다.¹³⁰⁾

또한 출애굽기 23장 20-21절¹³¹⁾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자의 손을 통해서 그들의 인도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라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큰 긍휼을 무시하고 자기의 정욕을 좇는다면, 형벌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감시인으로 세우신 사자의 눈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된다고 한다.¹³²⁾

IV.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여호와와 사자

A. 교회의 머리

칼빈의 기독교론은 ‘위로부터의 기독교론’이다. 이것은 현대신학의 유행인 ‘아래로부터의 기독교론’인 역사적 예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 전통적

130) *Comm. on Hos.* 12:3-5.

131)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132) *Comm. on Exod.* 23:20.

신조의 입장을 그대로 받으면서도 기독교를 하나님의 작정과 구원에 깊이 연관시켜서 본다. 동시에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정확성을 기하려고 한다.¹³³⁾ 워필드는 칼빈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사역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한다.¹³⁴⁾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원하신 계획에 의해 만물을 통일하는 머리로 지명 받으셨다.¹³⁵⁾ 그리스도는 영원한 중보자이시며,¹³⁶⁾ 처음에 선민을 선택한 것도 순전히 중보자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었다.¹³⁷⁾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없이는 인류를 향하여 화해할 수 없으므로 거룩한 족장들은 율법아래에서 믿음을 지향해야 할 목표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제시되었다.¹³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자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었다.¹³⁹⁾ 또한 칼빈에 의하면,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고 있었으며, 그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결합되었고 그의 약속들에 참여하게 되었다.¹⁴⁰⁾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성육신의 순간에만 중보자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던 영원전부터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는 언제나 항상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이시고, 천사들에 군림하시는 분이시다.¹⁴¹⁾ 즉 칼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이시며, 육신을 덧입기 전에 중보자의 신분(the character)을 취하셨다고 한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중보자이시므로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한다. 일개 하나의 천사가 여호와이시며 동시에 천사로 불릴 수는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호와로 천사로 불릴 수가 있는 것이라고

133) 박해경,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p.185.

134) B. B. Warfield, *Calvin · Luther · Augustine*, 『칼빈 · 루터 ·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회 번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39.

135) *Inst.*, 2,12,5.

136) *Inst.*, 2,15,6.

137) *Inst.*, 2,6,2.

138) *Inst.*, 2,6,2.

139) *Comm. on John*. 5:23.

140) *Inst.*, 2,10,2.

141)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204.

한다.¹⁴²⁾

칼빈은 창세기 28장 주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이유는 이미 그때 야곱의 허리에 계셨던 그리스도에게 이 언약이 근거하기 때문이다. 즉, 야곱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¹⁴³⁾

구약성경 말라기 3장은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the messenger of the covenant)라고 한다. 이 예언의 성취를 마가복음 1장은 언급한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가? 칼빈은 언약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하며, 언약과 사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말라기 3장 1절¹⁴⁴⁾주석에서 칼빈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에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요한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자’는 곧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한다.¹⁴⁵⁾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가 사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가 ‘내 앞’, 곧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사자는 ‘내’ 앞에 즉 여호와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임무이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구하는 ‘주’가 성전에 오시겠다는 것과 이분이 바로 그들이 간절히 기다린 ‘언약의 사자’라는 것을 말해준다. 마가복음 1장은 말라기 3장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말씀이다. 마가복음 1장 2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이다. 그런데 칼빈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성경구절은 말라기에서 마가가 인용한 것이며, 마가가 이사야서를 말라기로 잘못 말했는지, 아니면 이사야서 외에 말라기서를 함께 본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이해한다. 또한 예언서에는

142) *Comm. on Hos.* 12:3-5.

143) *Comm. on Gen.* 28:13-14.

14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the messenger of the covenant)가 임할 것이라”

145) *Comm. on Mal.* 3:1.

“내가 내 천사(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하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는 2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라고 기록하였는데, 칼빈은 이것을 마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려오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마가가 선지자의 말을 보다 더 명백하게 드러내려는 의도 외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이해한다.¹⁴⁶⁾ 필자의 견해로는, 마가가 이사야와 말라기서를 함께 인용한 것으로 본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칼빈은 ‘주’라고 번역된 **יְהוָה**(아돈)은 중보자(a Mediator)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며, ‘언약의 사자’ 혹은 ‘천사’로 약속된다고 한다.¹⁴⁷⁾ 5절¹⁴⁸⁾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오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는 이스라엘에게는 ‘주’요 또한 ‘언약의 사자’이다. 또한 그는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본문을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 칼빈에 의하면, 구속자가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교회를 다스리라는 사실이 율법의 핵심이며,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왕과 함께 중보자를 약속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중보자를 구하며 사모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에 의해 확증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 부르는 것이다.¹⁴⁹⁾

또한 칼빈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한다. 출애굽기 14장 19절¹⁵⁰⁾주석에서 칼빈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사자를 여호와로 이해한다. 칼빈은 여호와라고 불리었던 분이 사자(the Angel)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146) *Comm. on Mark.* 1:1-6.

147) *Comm. on Mal.* 3:1.

148)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149) *Comm. on Mal.* 3:1.

150)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유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God's only-begotten Son)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¹⁾ 출애굽기 23장 22-23절¹⁵²⁾주석에서도,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자의 호위 아래에서 지키는 것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¹⁵³⁾ 31절¹⁵⁴⁾주석에서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⁵⁵⁾ 즉 칼빈은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언급한다. 이렇게 칼빈은 여호와와 사자는 언약을 선포하시고 체결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한다. 칼빈은 또한 하박국3장 13절¹⁵⁶⁾ 주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중보자를 통하여 하셨다고 한다. 왜냐하면 중보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며, 교회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보자의 직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⁵⁷⁾

칼빈은 여호와와 사자가 많이 언급되는 스가라서 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자'로 불리는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지만,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에 때문이라고 한다. 스가라 1장 2절¹⁵⁸⁾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 탄원

151) *Comm. on Exod.* 14:19.

152)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153) *Comm. on Exod.* 23:22.

154)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155) *Comm. on Exod.* 23:31.

156)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칼빈은 Christo로 씀)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57) *Comm. on Hab.* 3:13.

하는 천사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염려하신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한다.¹⁵⁹⁾ 즉 칼빈은 그리스도를 증보하는 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스가랴 2장 8절¹⁶⁰⁾주석에서, 칼빈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본다.¹⁶¹⁾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성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이시며 아버지의 천사, 또는 사자이기도 하다고 한다.¹⁶²⁾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났으며 열국에 보내심 받았다는 것이다.¹⁶³⁾ 그래서 본문을 왜곡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¹⁶⁴⁾ 9절¹⁶⁵⁾주석에서, 칼빈은 이 구절에서의 ‘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의 이름으로 그들 위에 손을 움직이시며, 교회의 통치권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귀속되며¹⁶⁶⁾,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고 한다.¹⁶⁷⁾ 10절¹⁶⁸⁾주석에서, 칼빈은 이 구절은 성부가 아니라 성자에게 합당한 구절이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천사나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이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여호와와 이름은 그리스도에게 적절한데, 본질적으로(as to essence)

158) “여호와와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칠십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59) *Comm. on Zech. 1:12.*

160)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161) *Inst., 1,13,10.*

162) Christ is Jehovah, and yet the Angel or the messenger of the Father.

163) Christ is here set forth as the Father’s herald; and he says that he was sent to the nations.

164) *Comm. on Zech. 2:8.*

165)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줄 알리라”

166) The government of the Church is vested in its Head.

167) *Comm. on Zech. 2:9.*

168) “여호와와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단지 위격으로(as to their persons) 구별될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only to be distinguished).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부의 사자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은총이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⁶⁹⁾ 11절¹⁷⁰⁾주석에서, 칼빈은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종종 여호와로 불리우며,¹⁷¹⁾ 칼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구별되며,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 하나 이상의 위격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¹⁷²⁾

스가랴 3장 1-2절¹⁷³⁾주석에서, 칼빈은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신분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사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사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불린다고 한다.¹⁷⁴⁾

169) *Comm. on Zech. 2:10.*

170)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71) He who declares that he was sent, is often called Jehovah.

172) *Comm. on Zech. 2:11.* It hence appears that one and the same divine eternal essence is in more persons than one.

173)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174) *Comm. on Zech. 3:1-2.* who is called an angel and also Jehovah.

B. 성육신의 암시

어거스틴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격이 모두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¹⁷⁵⁾ 즉 구약의 신현들은 언제나 피조된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되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후에 스콜라 철학자들과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또한 소시니안, 알미니안, 합리주의자들, 호프만, 바움가르텐, 텔리취, 그리고 크레머는 이것이 오직 천사들의 현현만을 가르친다고 이해하였다.¹⁷⁶⁾

그러나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은 모두가 일치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로고스의 신현(a theophany of the Logos)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유스티노스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구상의 한 귀퉁이에 나타나실 수 없으며, 구약의 신현들은 로고스의 현현이라고 주장한다. 교회에서는 유스티노스의 가르침대로 구약의 신현들은 성자 곧 로고스의 현현으로 받는다.¹⁷⁷⁾ 이레네우스는 옛날 선조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고 이해한다. 그는 성자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모세의 손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 족장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이라고 그는 단정하면서 성자의 자존성을 입증한다.¹⁷⁸⁾ 루터와 칼빈은 말라크 야웨(יהוה יצחק)란 표현이 어떤 구절에서는 피조된 천사들, 어떤 구절에서는 피조되지 않은 사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후기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모든 구절들에서 로고스(the Logos)를 찾았다. 즉 어거스틴와는 달리 칼빈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스도로 본다.¹⁷⁹⁾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말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이런 교리는 인류역사의 올바른 해석과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에 대한 바른

175) Augustinus, *De Trinitate*, 2,32.

176) 서철원,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3), p.108.

177) 서철원, p.108.

178) *Inst.*, 1,13,27.

179)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p.375.

견해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였다.¹⁸⁰⁾ A. A. 핫지도 성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파송되실 수 없고,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파송되실 것을 언급한다.¹⁸¹⁾ 윌리스는 칼빈의 기독교론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초월'(Extra Calvinisticum) 교리를 그리스도의 이중 중보사역으로 이해한다. 즉, 그는 '성육신 이전의 로고스'(Logos asarkos)로서는 '창조 후의 보존자'(Sustainer)이시고, '성육신한 로고스'(Logos ensarkos)로서는 '구속자'(Redeemer)라 본다.¹⁸²⁾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있어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다. 특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적응이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의 구체적 이유를 든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암시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안에서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었다고 이해한다.¹⁸³⁾

칼빈은 창세기 18장 2절¹⁸⁴⁾ 주석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로서 분명히 천사들의 군주(Head)이신 그리스도로 본다.¹⁸⁵⁾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조상들에게 가끔 천사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천사를 거느리고 수행원으로 삼고 있으면서 그 천사들의 군주(the Head)로 계신다.¹⁸⁶⁾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들 가운데서 위엄 면에서 다른 천사들보

180) Herman Bavinck, *Magnalia Dei*,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p.274.

181) A. A. Hodge, *Outlines of Theology*, 『하지 조직신학(제1권)』, 고영민 역(서울: 기독교문사, 1981), p.256.

182) 박해경, "기독교론",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p.124.

183) *Inst.*, 1,11,3.

184)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85) *Comm. on Gen.* 18:2.

186) *Comm. on Gen.* 18:9.

다 월등한자로서 주요한 위치(the principal place)를 차지하였으며, 언제나 중보자이셨다.¹⁸⁷⁾

창세기32장과 호세아12장은 천사가 야곱과 씨름한 장면이다. 여기서 칼빈은 영원한 말씀이 아직 비하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에게 정해져 있는 임무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한다.¹⁸⁸⁾

칼빈은 출애굽기 23장 20-21절¹⁸⁹⁾주석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유한 속성(His peculiar attribute), 즉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한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위엄과 영광이 거하게 하시며,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게 되고 심판의 권세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사자는 어떤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머리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리스도가 천사의 이름으로 칭함 받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성육신하신 중보자(the Incarnate Mediator)는 아니었지만, 그는 장래의 사명에 대한 징후(an indication)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⁰⁾

칼빈은 여호수아 5장 13-15절¹⁹¹⁾주석에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이며 공개적이고 친근한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이해한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분은 모세에

187) *Comm. on Gen.* 19:1.

188) *Inst.*, 1,13,10.

189)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190) *Comm. on Exod.* 23:20.

191)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게 나타나신 분과 같으며 확실히 교회의 대장이라 한다. 머리가 나타나신 것은 신의 은총의 특별한 보장이었으며, 신의 입장은 증보자의 손길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확증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칼빈은 여기에 옛 선배들이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은 후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신비에 대한 전조였다는 것을 인정한다.¹⁹²⁾

스가랴 2장 11절¹⁹³⁾주석에서도, 칼빈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다른 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계신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권능과 공의와 선하심과 영광의 충만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 문이라는 것이다.¹⁹⁴⁾

C. 성전과 제물

성경은 세 종류의 성전을 말한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땅에 속한 성전이다. 두 번째는 땅에 속하지 않는 하늘의 성전으로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의 몸이다. 여기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증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이시며 제물이시다. 또한 이 분의 피제사는 완전하여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도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 칼빈은 그의 저서들에서 메시아와 성전과 제사제도들에 대해서 잘 연결하

192) *Comm. on Jos.* 5:13-15.

193)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194) *Comm. on Zech.* 2:11.

여 설명한다. 필자는 그 중에서 여호와와의 사자와 성전, 제사제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나타나신 여호와와의 사자가 언급되는 창세기 22장 1-2절¹⁹⁵⁾주석에서, 칼빈은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에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밀한 계획 가운데서 작정하셨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다.¹⁹⁶⁾ 칼빈은 그리스도는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귀한 아들 이삭으로 본다.¹⁹⁷⁾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와 그의 처는 천사에게 제사를 드렸다. 칼빈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 천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니라 한다. 왜냐하면, 종으로서의 천사는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⁹⁸⁾ 또한 칼빈은 스가랴 4장 9절¹⁹⁹⁾주석에서 그리스도께서 지도자로 계시지 아니하시는 한 성전건축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²⁰⁰⁾ 또한 칼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므로 이방 땅에 포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그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실 것을 언약하신다고 한다.²⁰¹⁾ 칼빈은 미가서 강해에서는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예언은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성취되지만, 또한 이것은 예수 그

195)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96) *Comm. on Gen*, 22:2.

197) John Calvin, “올리베탄의 신약서문”,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편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80.

198) *Inst.*, 1,13,10.

199)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200) *Comm, on Zech*, 4:9.

201) John Calvin, *Sermons on micah*, 『칼빈의 미가강해』, 서문 강 역(서울: 잠언, 1996), pp. 535-536.

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²⁰²⁾ 칼빈은 사무엘하 강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처를 두신다는 의미는 우리 인간의 미숙함과 약한 능력에까지 자신을 낮추어 일치시키고 계신다고 한다.²⁰³⁾ 칼빈은 구약의 모든 성막과 성전의 제사, 의식, 제사직, 희생제물, 성소의 순서등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²⁰⁴⁾ 칼빈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설교에서 그리스도는 성전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신다고 한다.²⁰⁵⁾ 칼빈은 회막과 예배의 하늘 모형도 구약시대의 성례로 본다. 다만 고대의 성례들은 그리스도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을 동안에 어렴풋이 그를 예시한 것이며, 현재의 성례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한다.²⁰⁶⁾

칼빈은 말라기 3장 1절 주석에서 비록 성전에 임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하지 않지만, 그 후의 절들의 주석과 기독교 강요에서 언약의 사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칼빈에 따르면, 성전이란 하나님께만 봉헌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언제나 경배했던 그 하나님이라고 결론내린다.²⁰⁷⁾ 또한 2절²⁰⁸⁾주석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괴로움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은 더욱 순결하게 하고, 불신자들은 그 더러움을 불살라 버리신다고 한다. 여기서 불은 더러운 것을 태울 뿐만 아니라, 또한 금과 은을 연단시켜 불순물을 없애기도 하다고 한다.²⁰⁹⁾ 칼빈은 또 저서들에

202) John Calvin, *Sermons on micah*, 『칼빈의 미가강해』, 서문 강 역(서울: 잠언, 1996), 7:10-12.

203) John Calvin, *Sermons on 2Samuel by John Calvin*,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I』.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5), 7:4-13.

204) *Comm. on Luke. 24:27*.

205) John Calvin, *A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John Calvin*,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김동현 역(서울: 지평서원, 2000), 1 Tim 2:8.

206) *Inst.*, 4,14,20.

207) *Inst.*, 3.13.10.

208)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서 ‘불’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정련하신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금과 은을 불 속에서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²¹⁰⁾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택한 자에 대한 죄사함과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라 한다. 또한 칼빈은 죄사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과 분리될 수 없다고 이해한다.²¹¹⁾

대속죄일에 속죄염소의 피가 뿌려지는 곳은 언약궤의 뚜껑이다. 이 뚜껑을 속죄소라 부른다. 그런데 칼빈은 사무엘하 6장 1-7절 설교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의 상징물로 생각한다. 오늘날에 그 같은 궤가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내포된 일체의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궤의 뚜껑(=속죄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으로 본다. 이 뚜껑은 ‘화해’(propitiation) 즉 죄가 지워졌다는 의미가 분명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해자로 불리운다는 것이다.²¹²⁾ 칼빈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라고 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제 여호와로서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도 들어가셨다는데, 이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²¹³⁾

칼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단 한번의 제사로써 속죄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으며, 다니엘도 약속하였다고 한다.²¹⁴⁾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이유는 중보자는 피없이 약속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더러움을 깨끗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의해 세움을 입은 분으로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보상(expiation)의 한 증표이다.

209) *Comm. on Mal.* 3:2.

210) John Calvin, *Sermons on the saving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엄성욱 역(서울: 은성, 2001), p.249.

211)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Galadrians*,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설교 (상)』,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9), 3:1-2.

212) John Calvin, *Sermons on 2Samuel by John Calvin*,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4), 6:1-7.

213) *Comm. on Ps.* 24:8.

214) *Inst.*, 2,7,2.

하나님을 진정시키는(appeasing)일이 사명이다.²¹⁵⁾ 중보자가 되어 형벌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피를 흘려 주어 보상을 치름으로, 배상과 제물을 드렸고,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주었고, 이 터전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깃들게 되었다. 이러한 결속으로써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되었다.²¹⁶⁾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예배시에 떡을 경건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릇된 주문으로 성별한 후에 그리스도대신 경배하고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엄숙하게 들고 다녔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중보자로서 성인들이나 마리아를 더 선호하였다.²¹⁷⁾ 로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자들을 불러 중보하게 하고, 성모 마리아를 흠모하였다. 또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미사를 통해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간의 권위에 의존하게 하는 등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무너뜨렸다.²¹⁸⁾ 미사는 그리스도에게서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의 영예와 특권을 빼앗는 모독이며,²¹⁹⁾ 미사가 반복적으로 드러짐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²²⁰⁾

칼빈은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몸을, 성경이 방탕 호색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책망하고 있는 그런 오염에 내맡기면서 외적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것은 이미 큰 범죄라 하면서 비판한다.²²¹⁾ 교황파들

215) *Inst.*, 2,12,4.

216) *Inst.*, 2,16,2.

217) John Calvin, 『종교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2002), p.38, 62.

218) John Piper, *The Legacy of Sovereign Joy*,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마영래 역(서울: 좋은 씨앗, 2002), p.148.

219) *Inst.*, 4,18,2.

220) *Inst.*, 4,18,3.

221) John Calvin,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 『칼뱅작품선집V』, 박건택 편역(서울: 총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²²²⁾ 칼빈의 모든 노력을 하나로 묶어주는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의 열정이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예배에 있어서의 증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 때문이었다.²²³⁾ 그러므로 칼빈은 올바른 예배를 우선시하며 어떤 우상숭배도 반대한다. 칼빈은 인간의 노력이 함축된 것 같은 헌신(devotio)이란 말들을 경건(pietas)으로 대체하였다.²²⁴⁾ 또한 칼빈은 설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보여 주지 않는 것은 무익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에 충실한 설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라고 보았다.²²⁵⁾ 하나님의 언약의 표증은 성례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기어 졌으며 모든 죄를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언약이 있다고 이해한다. 세례는 언약의 완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확실한 언약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²²⁶⁾

V. 여호와와의 현현 교리에 있어서의 발전방향

A.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한 설명의 명료성

신대학교, 1998), p.90.

222) John Calvin, “신도의 처신”, 『칼뱅작품선집 V』, 박건택 편역(서울: 총신대학교, 1998), pp.9-10.

223) John Piper, p.148.

224)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p.173.

225) 김하진, 『주체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p.131.

226)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Galatians*,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 김동현 역(서울: 서로사랑, 2001), pp.70-71.

칼빈은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와 사자에 대하여 어거스틴 보다는 좀더 성경적으로 언급하였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전체가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봄에 반하여 칼빈은 여호와와 사자를 전반적으로 그리스도라고 언급하였다. 칼빈은 주로 여호와와 사자에 관하여 그의 주석에서 언급하였다. 칼빈은 성경주석을 함에 있어서 간결성(brevitas)과 용이성(facilitas)을 추구하였다.²²⁷⁾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호와와 사자를 하나님으로 명백히 나타내는 여러 본문들에서조차 여호와와 사자를 단순히 사자 정도로 언급하는 수준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필자는 그 본문들에서조차 칼빈은 당연히 여호와와 사자를 하나님이라고 전제하며 주석하였을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왜냐하면 칼빈은 다른 성경주석들과 기독교 강요에서 여호와와 사자를 하나님으로 자주 명확히 언급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단순히 여호와와 사자를 대사정도로 언급하는 본문들에서조차 그의 생각은 여호와와 사자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듯이 그의 스가랴 주석에서는 집중적으로 여호와와 사자를 여호와이시지만 아버지에게서 보냄받은 사자이신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추측할 수 있다.²²⁸⁾ 즉 칼빈은 때때로 반복해서 여호와와 사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전제하고 주석하는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단지 교회들을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설명과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창세기 22장 11-12절과 15-18절²²⁹⁾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227)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147. 안명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원학적으로 brevitat란 영어로 brevity혹은 conciseness라고 번역된다. 간결성이란 몇 단어로 표현이나 기간을 짧게 하는 곳이다. 또 facilitat란 영어로 facility혹은 fluency of expression 로 번역된다. 즉 용이성이란 표현을 쉽게 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228) *Comm. on Zech.* 4:9.

229)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다. 칼빈은 이곳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위격으로(in the person of God)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²³⁰⁾ 즉 단지 대사정도로 여기는 듯한 표현들을 사용한다. 필자가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였다. 즉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곧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한다. 좀 쉬운 이 성경본문에서 칼빈이 좀더 명확하게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 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언급하였다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었다.

이제 간단히 칼빈이 여호와의 사자를 단순히 대사정도로 언급하는 성경본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칼빈은 창세기 31장 11-13절²³¹⁾ 주석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위격(the person of God)을 가지신 분으로 보고 있으나²³²⁾,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자가 본문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사

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230) *Comm. on Gen. 22:15.*

231)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 보라 양 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벨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232) *Comm. on Gen. 31:13.*

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한다. 여기서 여호와와의 사자는 ‘내’라고 하였다. 즉 여호와와의 사자는 그 자신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곧 여호와와의 사자 자신이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과 여호와와의 사자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한다. 뵤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와의 사자이다. 이 여호와와의 사자가 야곱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를 “나는 뵤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셨다. 곧 자기가 바로 뵤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 칼빈은 구체적으로 창세기 28장과 31장에서 여호와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또한 민수기 22장 22절²³³⁾주석에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는 천사에게 칼을 준 이유는 나귀와 그릇된 선지자에게 두려움을 주어 놀라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사에게 옷을 입히셨던 것이다. 천사는 원래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원하실 때에, 형체를 입고 인간의 성격 (character of human beings)을 따라 행동하신다고 한다.²³⁴⁾ 여기서도 칼빈은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리스도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31절²³⁵⁾주석에서, 칼빈은 발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천사를 숭배했으며, 발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한다. 단지 발람이 하나님께 책망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억지로 경배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²³⁶⁾ 칼빈은 여기서 발람이 여호와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통하

233)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4) *Comm. on Num. 22:22.*

235)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236) *Comm. on Num. 22:31.*

여 필자는 칼빈이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어느 정도 추측한다.

민수기 22장 32-33절²³⁷⁾을 보면,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3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라고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가 아니라면 이러한 말씀은 매우 이상한 것이다. 결국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를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친히 스스로 발람을 죽일 수도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민수기 22장 34절²³⁸⁾을 보면,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므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수기 22장 35절²³⁹⁾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말하고 있다. 발람도 발락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라고 하므로써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에 있어서 칼빈에게 아쉬운 것 중의 하나는 사사기 주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사기에는 여호와의 사자에 관한 말씀이 많다. 이것을 통하여 언약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고 명확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칼빈의 주석에는 사사기가 없다. 기독교강요에 포괄적으로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만약 칼빈의 사사기 주석이나

237)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238)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239)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설교가 있었다면 교회는 매우 큰 유익을 얻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칼빈의 뒤를 이어서 사사기를 연구하여 증보자 그리스도 관한 자료를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칼빈의 견해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칼빈은 여호와의 사자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다.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참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truly and essentially God)이셨고, 그는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셨다.²⁴⁰⁾ 또한 여호와의 사자는 구속주이신 하나님으로이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하게 취하신다.²⁴¹⁾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야곱은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이 항상 경배하던 하나님이다.²⁴²⁾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240) *Comm. on Hos.* 12:3-5.

241) *Comm. on Zech.* 2:10.

242) *Inst.*, 1,13,10.

둘째,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와 사자의 현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낮추심이다. 여호와와 사자가 천사와 특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이유는 연약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적응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적응하신 것이다.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다. 여호와와 사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고 저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씨름하여 지실 리가 없지만은 저주신다. 그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호와와 사자가 직접 천사의 모습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식사를 대접받으시면서 좀더 친근하게 아브라함을 대하셨다. 또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직접 씨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낮추심이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야곱을 아버지 같이 씨름하여 주시므로 그의 자비를 나타내시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주시었다.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와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할 때에, 그들 앞서 가셨다. 또한 이스라엘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기도 하셨다. 또한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낮추심을 신약에까지도 확대한다. 칼빈은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이해 범주에 낮아지심으로 본다.²⁴³⁾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그의 낮추심과 인간의 이해력에 까지 자기를 적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칼빈은 성례에 있어서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인자를 좇아 우리의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키시며, 자신을 낮추셔서 이

243)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1997), p.135.

런 땅에 속한 요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며 영적인 축복의 거울을 두신다고 한다.²⁴⁴⁾ 그래서 이레네우스는 “성부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성자 안에서 유한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마음이 무한한 그의 영광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낮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기 때문이다”라고 한다.²⁴⁵⁾ 칼빈은 디모데전서2장 5-6절²⁴⁶⁾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세상 죄에 대한 속죄였으며,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다. 사람의 육신을 입어 인자가 될 만큼 자신을 낮추셨다고 한다.²⁴⁷⁾ 칼빈은 이러한 적응을 그의 베드로전서 1장 20절 주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그맣게 만들어 우리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라고 한다’.²⁴⁸⁾

셋째, 칼빈에 의하면, 언약의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때의 교회의 머리이셨다. 칼빈에 의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라고 번역된 **יְהוָה**(아돈)은 중보자(a Mediator)를 의미한다. 칼빈에 의하면, 중보자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모두 중보자가 필요하다. 칼빈은 구약에서 언약의 중보자를 여호와의 사자로 본다.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자들과의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위해서이다. 여호와께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 그리스

244) *Inst.*, 4,14,3.

245) *Inst.*, 2,6,6.

246)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247)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1 Timothy*.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 김동현 역(서울: 엘멘, 2002), 2:5-6.

248) *Comm. 1 on Pet.* 1:20.

도께서는 여호와와 사자로서 이미 구속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중보자이시다.²⁴⁹⁾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성자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이시며 아버지의 천사, 또는 사자이기도 하다. 칼빈은 성부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종종 여호와로 불리우며, 칼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구별되며,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 하나 이상의 위격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²⁵⁰⁾ 천사라는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직무에 있어서 불리는 호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라 호칭받는 것은 타당한 것이다.²⁵¹⁾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구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로 부르기도 한다.²⁵²⁾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안에 하나의 위격이다. 여호와 안에 여호와의 사자 외에 다른 위격들이 존재한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이면서도 동시에 여호와로 나타난다. 여호와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등하다. 파송하시는 여호와와 파송되시는 여호화를 구분한다. 칼빈은 여호와에게서 파송되시는 여호화를 여호와의 사자로 본다.²⁵³⁾ 그러나 파송하시는 여호와와 파송되시는 여호와이신 여호와의 사자는 동일본질임을 언급한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와 동일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여호와와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분이다. 다른 천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종으로서만 행동하는데 반하여, 그리스도는 스스로 여호와의 사자이면서 동시에 여호와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을 받은 분이시지만 여호와와 동일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동일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한다. 일시적으로 천사의 모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여호와는 단순히 성부만

249) *Comm. on Hos.* 12:3-5.

250) *Comm. on Zech.* 2:11.

251) *Comm. on Hos.* 12:3-5.

252) *Comm. on Zech.* 3:1-2.

253) *Comm. on Zech.* 2:8.

을 지칭하지 않는다. 성부도 여호와요 성자도 여호와시시다. 그러나 각 위는 구분된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²⁵⁴⁾ 칼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위격은 구별되며, 하나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이 하나 이상의 위격 안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한다.²⁵⁵⁾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본질상 하나님이지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그의 성자 하나님을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란 호칭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시므로 제사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의 머리와 같으며 머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몸의 연합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²⁵⁶⁾ 칼빈은 성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중보를 하시고 또한 신약시대에는 성육신하셔서 중보하신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시대 모두 완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하여 언약하시고 그 중보자가 그 언약의 기초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넷째, 칼빈에 의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은 성육신의 암시이다.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천사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견해에서 문제가 되는 견해는 피조된 천사가 하나님 대신에 활동하였다는 견해이다. 이것을 주

254) *Comm. on Zech. 2:10.*

255) *Comm. on Zech. 2:11.*

256) John Calvin, *John Calvin's Sermons on Ephesians*, 『에베소서 설교 하』, 김동현 역(서울: 솔로몬, 1999), 4:15-16.

장한 이들 가운데 세르베투스는 천사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²⁵⁷⁾ 그러나 칼빈은 이것은 가증스러울만치 불경하다고 한다.²⁵⁸⁾

교회의 정통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는 벌써 그때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초대교부인 이레네우스는 이 방법을 매우 지지하는데,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약족장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²⁵⁹⁾ 칼빈은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를 알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증거한다.²⁶⁰⁾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이라 한다. 이러한 증거가 모든 삼위일체논쟁을 종결시킬 정도로 매우 좋은 증거라는 것이라 한다.²⁶¹⁾

칼빈에 의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가 장차 그리스도안에서 계시하실 것에 대한 서곡이었다.²⁶²⁾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을 암시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육신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시대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듯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이것을 더욱 발전적으로 보아서 내세에까지 생각해보면, 칼빈은 하나님

257) *Inst.*, 1,13,10.

258) *Inst.*, 1,13,10.

259) *Inst.*, 1,13,10.

260)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p.82.

261) *Inst.*, 1,13,10.

262) *Inst.*, 1,11,3.

께서 인간들을 그날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뵈는 일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²⁶³⁾ 즉 칼빈은 성자가 성부에게 나라를 돌려드리는 것을 그의 성육신에 관계하는 것으로 보았다.²⁶⁴⁾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구약시대에는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우리의 이해력의 수준까지 내려오셨고, 또한 신약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세에는 더 이상 이러한 방법을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는 경지에 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칼빈은 그리스도와 성전을 긴밀히 연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위한 중보자를 주시는 것이라 한다. 즉 칼빈에 의하면, 중보자는 언약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중보자를 약속하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구속자가 오셔서 교회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교회를 다스리라는 사실이 율법의 핵심이다. 성전은 그리스도에 기초되어 있으며 중보자가 성전에 오시는 것이다. 죄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깨끗함 받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세상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발전적으로 교회에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자리로 비유되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 선포자들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칼빈은 열쇠의 권능은 교회의 설교를 의미한다고 보았다.²⁶⁵⁾ 이렇게 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의 하나

263) *Comm. on 1 Cor. 15:27.*

264) Heinrich Quistorp,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칼빈의 종말론』, 이희숙 역(서울: 성광문화사, 1995), pp.234-235.

265)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서울: 솔로몬, 2003), pp.69-70.

님의 말씀의 선포와 경청을 통하여 자연의 참된 질서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⁶⁾

결론적으로 칼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던 바로 그 하나님이며,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구속주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와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입증한다.

266)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p.185.

참고 문헌

1. 칼빈 저작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7.

..... *Commentary on Genesis I*. 『구약주석1-창세기 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Genesis II*. 『구약주석2-창세기 I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Law I*. 『구약주석3-출애굽기 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Law IV*. 『구약주석4-출애굽기 IV』.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Law IV*. 『구약주석4-민수기 IV』.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Law III*. 『구약주석5-출애굽기 II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the book of Joshua I*. 『구약주석6-여호수아 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salms*. 『구약주석7-시편 I』.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salms.* 『구약주석11-시편 V』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Isaiah.* 『구약주석12-이사야 I』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Ezekiel.* 『구약주석23-에스겔』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Jeremiah and Lamentation.* 『구약주석19-예레미
야IV』 . 1999. 서울: 성서원,
- *Commentary on Hosea.* 『구약주석26-호세아』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Zechariah.* 『칼빈구약주석29-스가랴』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bakkuk.* 『구약주석30-하박국』 . 서울: 성서
원, 1999.
- *Commentary on Malachi.* 『구약주석30-말라기』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armony of the gospels.* 『신약주석2-공관복음
II』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John.* 『신약주석3-요한복음 I』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Acts.* 『신약주석5-사도행전 I』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1 Corinthians.* 『신약주석8-고린도전서』 . 서울:
성서원, 1999.
- *Commentary on Hebrew.* 『신약주석10-히브리서』 . 서울: 성
서원, 1999.

- *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of Peter.* 『신약주석10-베드로전서』. 서울: 성서원, 1999.
- *Sermons on election & peprobation.* 『창세기 칼빈의 예정론 핵심설교』. 임원주 역. 서울: 예루살렘, 2000.
- *Sermons on 2Samuel by John Calvin.*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4.
- *Sermons on 2Samuel by John Calvin.* 『칼빈의 사무엘하 설교 III』.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5.
- *Sermons from Job.* 『칼빈의 욥기강해』. 서문 강 역. 서울: 지평서원, 2003.
- *Calvin's sermons on the books of Jeremiah.* 『칼뱅의 예레미야 설교 장 칼뱅』. 박건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Sermons on Isaiah's prophecy of the death and passion of christ.* 『칼빈의 이사야 설교』.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3.
- *Sermons on micah.* 『칼빈의 미가강해』. 서문 강 역. 서울: 잠연, 1996.
- *John Calvin's Sermons on Galadians.*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상)』.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9.
- *John Calvin's Sermons on Galadians.*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하)』. 김동현 역. 서울: 서로사랑, 2001.
- *John Calvin's Sermons on Ephesians.* 『에베소서 설교 상』.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5.
- *John Calvin's Sermons on Ephesians.* 『에베소서 설교 하』.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9.
- *John Calvin's Sermons on 1 Timothy.* 『칼빈의 디모데전서 강해(상)』. 김동현 역. 서울: 엘맨, 2002.

- *A selection of the most celebrated sermons of John Calvin.* 『존 칼빈 목회서신 강해』. 김동현 역. 서울: 지평서원, 2000.
- *Sermons on the saving work of Christ.*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엄성옥 역. 2001. 서울: 은성.
- *Instruction in Faith(1537).* 『칼빈의 신앙교육서』.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칼빈의 예정론』.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칼빈의 자유주의 반박론』.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4.
- 『종교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2002.
- “신도의 처신.” 『칼뱅작품선집 V』.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 1998.
-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 『칼뱅작품선집 V』. 박건택 편역. 서울: 총신대학교, 1998.
- “세르베투스의 오류에 대한 논박.” 『종교개혁사상선집』. 박건택 편역.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2000.
- “올리베팅의 신약서문.” 『칼빈의 조직신학 해석』.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2. 외국저자(단행본)

Augustinus. *De Trinitate.*

- Beza, Theodore. *The Life Of John Calvin*. 『존 칼빈의 생애와 신앙』. 김동현 역. 서울: 목회자료사, 1999.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하나님의 큰일』. 김영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The Doctrine of God*. 『개혁주의 신론』.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Cadier, Jean. *Calvin, l'homme que Dieu a dompté*. 『칼빈, 하나님이 길들인 사람』.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Crampton, W. Gary. *What Calvin says*. 『칼빈의 신학』. 박일민 역. 서울: 그리심, 2003.
- Doumergue, Emile. *Le Caractere de Calvin*. 『칼빈 사상의 성격과 구조』. 이오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Faber, Jelle.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John Calvin*. 『성신의 신학자, 존칼빈』. 김기찬 역. 서울: 성약, 2004.
- Green, Jay. *Calvinism;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칼빈주의; 어제 · 오늘 · 내일』. 정성구 역. 서울: 세종문화사, 1985.
-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하지 조직신학(제1권)』.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81.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칼빈의 삶의 신학』. 이용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McNei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 양낙홍 공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Niesel, Wilhelm. *Theologie Calvins*.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Parker, T. H. L. *Calvin's preaching*. 『칼빈과 설교』. 김남준 역. 서

- 울: 솔로몬, 2003.
- Piper, John. *The Legacy of Sovereign Joy*.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 마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Quistorp, Heinrich.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칼빈의 종말론』. 이희숙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Richard,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칼빈의 영성』.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Stauffer, Richard. 『칼빈의 설교학』. 박건택 편역. 서울: 나비, 1990.
- Tillich, Pau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송기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a Study of Calvin as Social Reformer, Churchman, Pastor and Theologian*. 『칼빈의 사회 개혁 사상』. 박성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칼빈의 말씀과 성례전 신학』. 정장복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96.
- Warfield, B. B. *Calvin · Luther · Augustine*. 『칼빈 · 루터 · 어거스틴』.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편역.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86.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te der Kirche*(교회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 『칼빈의 교회관』. 김영재 역. 2004. 서울: 성약.
- Wendel, Francois. *Calvin*, 『칼빈』. 김재성 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3. 외국저자(논문)

- Battles, Ford Lewis.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인간의 한계에 맞춰 조정하셨다
(*God Was Accommodating Himself to Human Capacity*)”.
Reading in Calvin's theology. 『칼빈신학의 이해』.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1.
- Reid, W. Stanford. "16세기 칼빈주의의 전파".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
향』. 홍치모 · 이훈영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4. 한국저자(단행본)

- 강정진. 『칼빈의 예정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김재성. 『칼빈과 개혁신학의 기초』.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1997.
- 『성령의 신학자 존 칼빈』.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김하진. 『주제별 칼빈주의』.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91.
- 나용화. 『칼빈의 기독교강요 개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칼빈과 개혁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94.
- 박건택. 『칼뱅의 자유론』. 서울: 솔로몬, 2003.
- 박해경. 『칼빈의 기독교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2004.
- 『칼빈의 신론』. 서울: 이컴비즈넷, 2005.
- 『칼빈의 신학과 복음주의』.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8.
- 서철원. 『교리사』. 서울: 총신대학교, 2003.
- 신복윤. 『칼빈의 하나님 중심의 신학』. 서울: 합동신학대학원, 2005.
-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7.

- 안명준. 『칼빈의 성경 해석학』.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이근삼. 『칼빈·칼빈주의』. 서울: 엠마오, 1995.
- 이태언. 『칼빈의 개혁사상 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92.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0.
-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대계』. 서울: 총신대학교, 1998.
- 『칼빈주의 사상과 삶(I)』. 서울: 한국성서협회, 1979.
- 『칼빈주의 연구』. 서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1992.
-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정준모. 『칼빈의 교리교육론』. 서울: 한들, 2004.
- 『칼빈의 교리교육과 현대 교육목회론』. 서울: 은혜, 2003.
- 황성철. 『칼빈의 교육 목회』. 서울: 이레서원, 2002.

5. 한국저자(논문)

- 김재성.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형성과 독특성과 중요성.” 『칼빈연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라은성. “세르베투스 비엔느 공판.” 『칼빈연구 제3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박해경. “기독교론”. 『최근의 칼빈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유해무. “삼위일체론”. 『칼빈 신학 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삼위일체론: 동방 신학과 관련하여.” 『칼빈 신학과 목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ABSTRACT

According to calvin, The Angel of God is God of the covenant. The Angel of God is God of abraham and isaac and jacob. The Angel of God makes the covenant with abraham and isaac and jacob, people of israel. The Angel of God Himself is God of the covenant.

According to calvin, theophany of The Angel of God is mercy of God and accommodation for the weak men. God Himself had appeared in the form of a man, and had ate and had communicated with abraham. He came down, in order to approach Mediator more intimately.²⁶⁷⁾

According to calvin, The Angel of God i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Man cannot without the Mediator come to God. God makes the head of church of The Angel of God. The name, "The Angel", is the name as of the office of Mediator.

According to calvin, Appearing of The Angel of God is an indication of an incarnation of Christ. so he set forth a figure of the office to which he had been destined.²⁶⁸⁾

According to calvin, the temple was sacred to Christ. The covenant of God is to give The Meadiator to men for conciliation of God and men.

267) *Inst.,1.13.10.*

268) *Inst.,1.13.10.*

In conclusion, According to calvin, The Angel of God is God of abraham and isaac and jacob. and The Angel of God is the Mediator Jesus Christ. therefore Jesus Christ is God of abraham and isaac and jacob. He is our God Redeemer.